

5·18 31주년

7



희생자 영정 입장 17일 열린 5·18 민중항쟁 31주년 전야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1990년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풍물매 5월굿판 5·18 민중항쟁 31주년 전야제가 열린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학생·시민 등 100명으로 구성된 풍물단이 행사 시작을 알리는 굿판을 벌이며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古家 고향의 맛
고가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4월 1일 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	--

고가 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

기억·관심·부활 속 '5월정신' 재현

■ 추모·전야제 이모저모

○…5·18 민중항쟁 31주년 전야제가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시민군이 끝까지 저항한 곳인 옛 전남도청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를 비롯해 5·18 당시 격전의 현장 금남로에는 시민 5000여명이 몰려 거대한 추모 공연장으로 변했다.

'관심'을 주제로 한 이날 전야제는 '기억', '관심', '부활' 등 3부로 나뉘어 미디어 아트와 공연을 결합해 5월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전했다. 1부에서는 강경대·박승희 등 1991년 민주화를 위해 숨진 열사 11명 영정의 행진을 통해 5월 열사와 만남을 형상화했으며 뮤지컬 '화려한 휴가' 갈라쇼 등 공연이 펼쳐졌다. 2부에서는 민예총 오월노래꾼, 일본 노래패 우타고에, 광주·전남 대학생 합창단, 극단 신명의 공연이 차례로 선보였으며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등이 3부 무대를 채웠다.

외국인들 캠코더 촬영 분주

○…지난 15일 관광차 광주를 찾은 외국인



영령 흔 달래는 춤사위

광주 나빌레라 무용단이 17일 5·18 전야제에서 5월 영령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흔을 달래는 춤사위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명이 전야제가 진행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를 찾아 각종 행사를 캡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영국인 메리 제인(여·32)씨는 "이곳에 와서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알게 됐다"며 "다음에 다시 한 번 광주를 찾고 싶다"고 미소를 지었다.

5월묘지 전국서 발길

○…추모식이 열린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추모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 수는 1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 늘었다. 추모객 박영우(34)씨는 "가족들과 함께 추모식장을 찾았는데, 5월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원생도 현화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합동종합청사 내 직장 보육시설인 '꿈초롱 어린이집' 원생 33

명은 이날 5·18 민주묘지를 방문,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원생들은 이날 추모탑 앞에서 현화·분향한 뒤 5·18 체험학습관·유령봉인소·추모관 등을 방문, 5·18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 등을 보고 배우며 민주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다.

임서연(여·7) 어린이는 "엄마·아빠한테 5·18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유령봉 인소에 걸린 사진을 보면서 언니·오빠들이 하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길 빌었다"고 말했다.

목포 '돌아오지 않는 오월' 공연

○…5·18 화순유공자회와 강진 5·18 문화추진위원회는 이날 화순군청과 강진군청에서 각각 5·18 기념행사를 갖고 영령들을 위로했다. 극단 '새결(단장 박홍필)'은 목포 필극장에서 5·18 민중항쟁의 아픔을 그린 연극 '돌아오지 않는 오월'을 공연,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31주년 5·18 행사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함께 역사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 말까지 광주·전남 곳곳에서 정신계승,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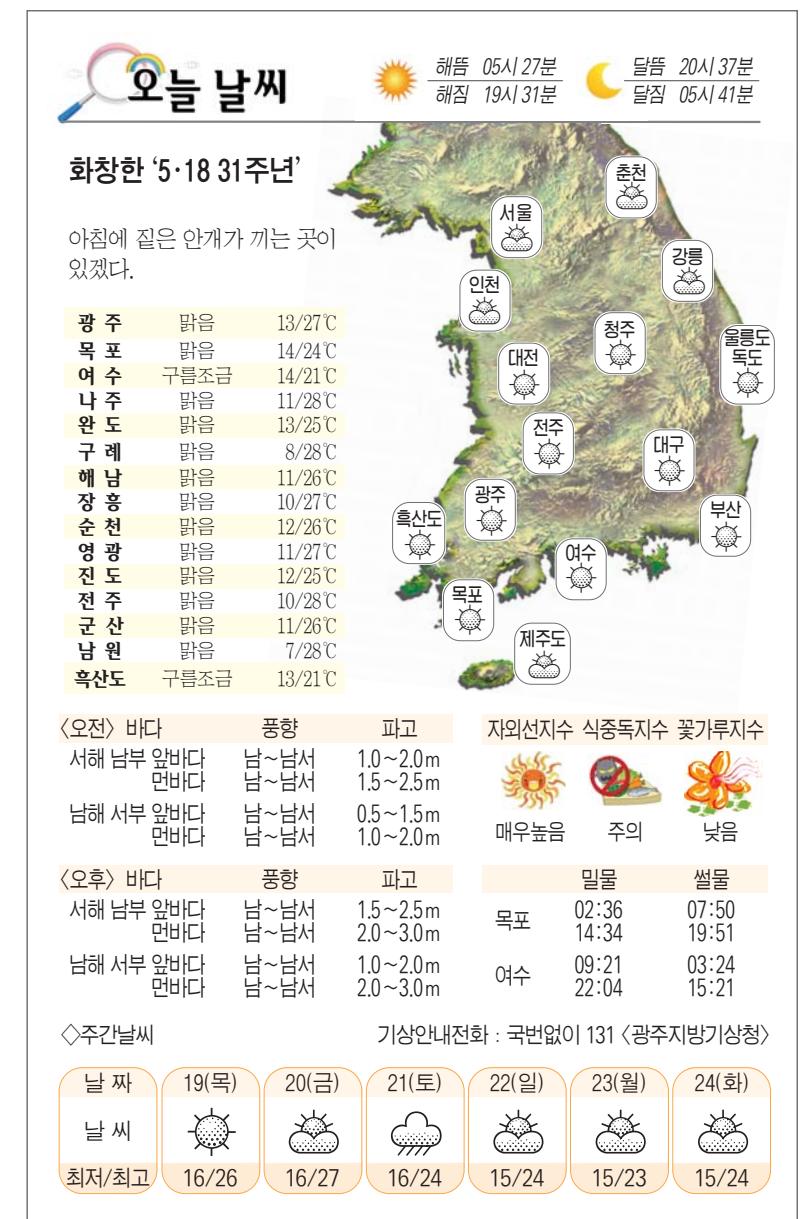
화예술, 학술교육, 국제연대 등 다양한 행사를 치러진다.

전북서도 다채로운 추모행사

○…5·18 광주 민중항쟁 31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는 17일 오후 3시 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5·18 최초 사망자인 故 이세종(당시 21세·전북대 농학과 2년) 열사 추모식을 연다. 이 열사는 1980년 5월 18일 0시께 계엄군에 죽기 전 전북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해 5·18 최초 사망자로 인정됐다.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식은 18일 오전 11시 전주시청 강당에서 새야단체 회원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송재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장은 "1980년 5월의 핵심정신인 연대와 공동체정신이 헤미 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민주화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古家 고향의 맛
고가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4월 1일 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	--

고가 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 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트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유품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유전일식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제2순환도로 화순 ↔
숙실마을
두암지구
대신증권
구 한국은행
구 남한금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
예약전화 062-233-9911